

# '코리안 타임'에서 '투명성'까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해방 이후 미국인을 비롯해서 점차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살아 왔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

필자의 세대 중학교 시절쯤일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많이 사람 입에 오르내렸다. 으레 지각을 일삼는 한국인들을 조롱삼아 외국인들이 만든 말이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는 뻔뻔함과 허세, 그리고 비문화적, 야만적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었다. 요즈음은 이런 말이 거의 쓰여지지 않는 사어(死語)쯤이 되었다. 그만큼 세상도 변하고 한국사람도 변했다. 허지만 아직도 그 비문화적 잔재를 즐기는 못난 무리가 있다.

친구, 친지들 약속모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전근대적인 야만족이다.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좁쌀만한 힘이라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인종들이 왕왕 그런 짓을 한다.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게다가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바쁜 시간에 온 것을 오히려 생색을 내며 티를 낼 때는 역겹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한편 역으로 '빨리 빨리'하는 조급성으로 둔갑하여 경박하기 짝이 없는 한국인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물질만능주의가 근대화의 쓰레기처럼 도처에 쌓여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조차 무시하는 쿠데타적인 범죄의식이 만연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스코필드박사(1888-1970)는 영국 태생으로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평생을 헌신하셨다.

고락을 한국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석호필이란 한국명을 갖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이셨다. 일제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에 협조하시기도 하였다. 독립 선언한 33인 한국의 애국자와 함께 34인 중의 하나라고 칭송되기도 한다. 그 분이 한국의 발전을 위하고 한국인을 사랑하여 세 가지 한국인의 단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다.

빛내서 잔치하는 허영심, 허세와 거짓이 첫째다. 핑계대며 성실치 못한 게 그 둘째다. 부

패가 셋째라고 따끔한 매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후 기막히게도 나라 전체가 빚내서 법석을 떨다가 IMF를 당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보면 정말 우리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가. 집단이기주의니 하여 내 밥그릇만 챙기려는 핑계로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뿌옇게 되어가는 것 같다. 연신 외국인들의 경고도 아랑곳없다. 걱정이다.

위크아웃된 건설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한 전직관료 출신 CEO가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기업 뿐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서 '부패공화국'이란 자조어린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판이다. 전문가들의 첫 화두가 한국의, 한국 정부의, 한국기업의 '투명성'이었다.

제발 자료나 말이나 행동을 뺄치지 말고 정직하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창피한 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꾸짖어 줄 사회와 사회의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고도 경제 성장만 되면 선진국이 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젓먹은 힘을 다해서 한 맺힌 절대 가난은 극복할 지 모른다. 허세, 거짓, 핑계와 부패-사회와 경제의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고는 결코 경제 성장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진국은 허망한 꿈일 뿐이다. 또한 돈만 많은 줄부 같은 나라가 결코 선진국도 아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7일 (금)	5월 10일 (월)	5월 11일 (화)	5월 12일 (수)	5월 13일 (목)
미	달	러 (USD)	1125.50	1121.40	1114.60	1119.10	1123.50
일	본	엔 (JPY)	1032.05	1033.12	1024.21	1029.96	1024.48
캐	나	다 달 러 (CAD)	925.84	924.79	921.77	925.11	926.67
홍	콩	달 러 (HKD)	144.88	144.40	143.53	144.06	144.67
위	안	화 (CNH)	173.61	173.61	173.48	174.29	174.62
유	로	화 (EUR)	1357.63	1364.80	1353.07	1359.20	1356.68
호	주	달 러 (AUD)	876.03	880.80	873.57	877.04	868.75
싱	가	폴 달 러 (SGD)	844.11	846.82	840.35	844.00	842.4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3.05	272.71	271.56	271.73	272.33